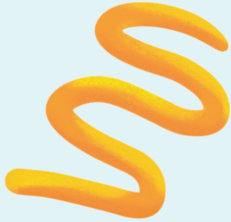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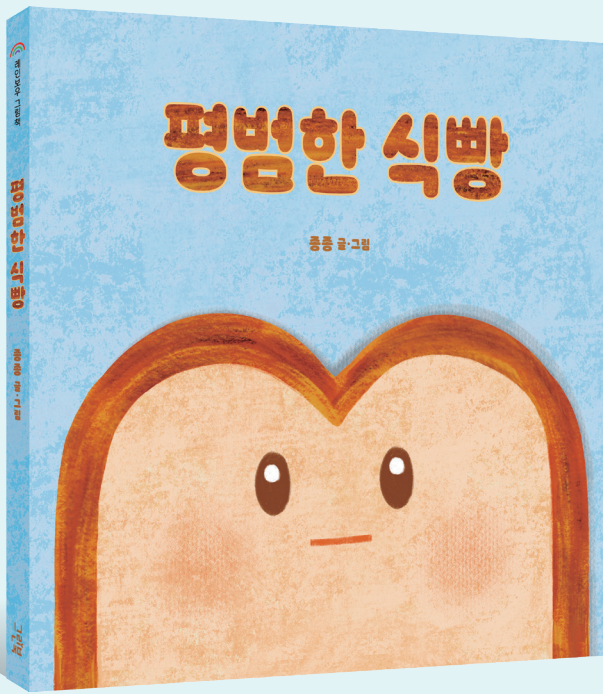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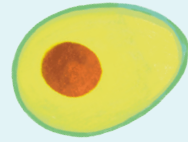


<평범한 식빵>



평범해서 특별한 nada움의 발견

각양각색 빵들의 세상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종종 글 · 그림
4~7세, 초등 저학년

못 말리게 귀여운 고민러가 나타났다! 자신이 평범해 속상한 식빵이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평범이 비범과 개성으로 확장되는 유쾌한 이야기, 세상 모든 평범이들을 위한 명쾌하고 발랄한 조언을 만날 수 있어요.

누리과정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신체운동 · 건강 > 신체 인식하기



교과연계

초등 국어 2-1 그림책으로 만나는 나
초등 국어 2-1 나는 누굴까
초등 국어 2-1 멋진 나
초등 국어 2-1 소중한 나의 꿈

글 © 김미주, 그림 © 종종

※ 이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① 알쏭달쏭, 빵 퀴즈!

독서전

다음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빵의 이름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1.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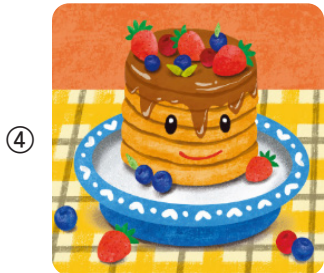
• 도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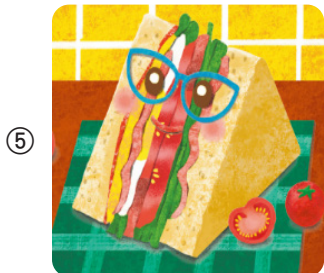
• 크루아상



• 샌드위치



• 크림빵



• 핫케이크

⑤ 핫케이크 ④ 크림빵 ③ 샌드위치 ② 크루아상 ① 도넛

1. 그림책에서 흉내 내는 말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세요.

- 보기: 말랑말랑, 매끈매끈, 알록달록, 울퉁불퉁, 노릇노릇

- 1) 식빵이는 크루아상의 ()한 근육이 부러웠어요.
- 2) 식빵이는 ()한 도넛을 보며 부러워했죠.
- 3) ‘겉은 ()하고 속은 딱 찹잖아. 난 겉도 속도 별거 없는데.’
- 4) “또, () 달걀과 프라이팬 위에서 만나면 영양 만점 배부른 토스트가 되고…….”
- 5) “부드러운 연어와 ()한 아보카도를 만나면 맛 좋은 연어 샌드위치가 되지.”



음음음음 (5) 골골골골 (4)

균균균균 (3) 놀름놀름 (2) 울름울름 (1) : 뽕뽕기괴기괴름 극대대울 나- (4) 울름 •



2. 보기처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 | | |
|-----|---|
| 보기) | ① 내가 선택한 흉내 내는 말 : 말랑말랑 |
| | ② 흉내 내는 말을 넣은 문장 : 나는 아빠의 말랑말랑한 뺏살이 좋아! |

1) 내가 만든 첫 번째 문장

- | |
|--------------------|
| ① 내가 선택한 흉내 내는 말 : |
| ② 흉내 내는 말을 넣은 문장 : |

2) 내가 만든 두 번째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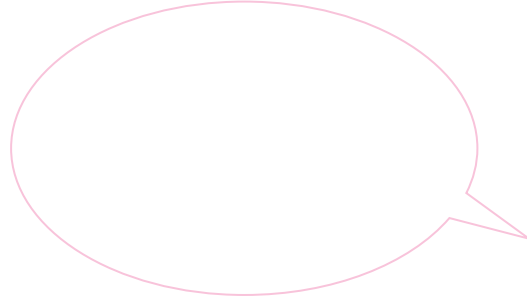
- | |
|--------------------|
| ① 내가 선택한 흉내 내는 말 : |
| ② 흉내 내는 말을 넣은 문장 : |

활동 ⑤ 식빵이 위로하기 대작전!

독서중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식빵이에게 뭐라고 위로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작아진 식빵이에게 하고 싶은 위로의 말을 떠올려 말풍선에 적어 주세요.

예) 식빵아,
너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다.
너는 평범한 식빵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특별한 식빵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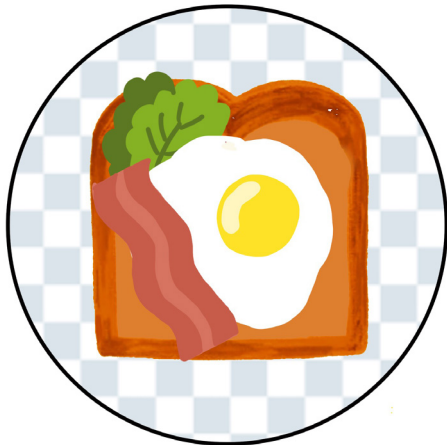
활동 ⑥ 나는 000 식빵!

독서후

1. 식빵 위에 맛있는 재료를 그려 특별하게 꾸며 주세요.
2. 식빵이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3. 접시도 이쁘게 꾸며 주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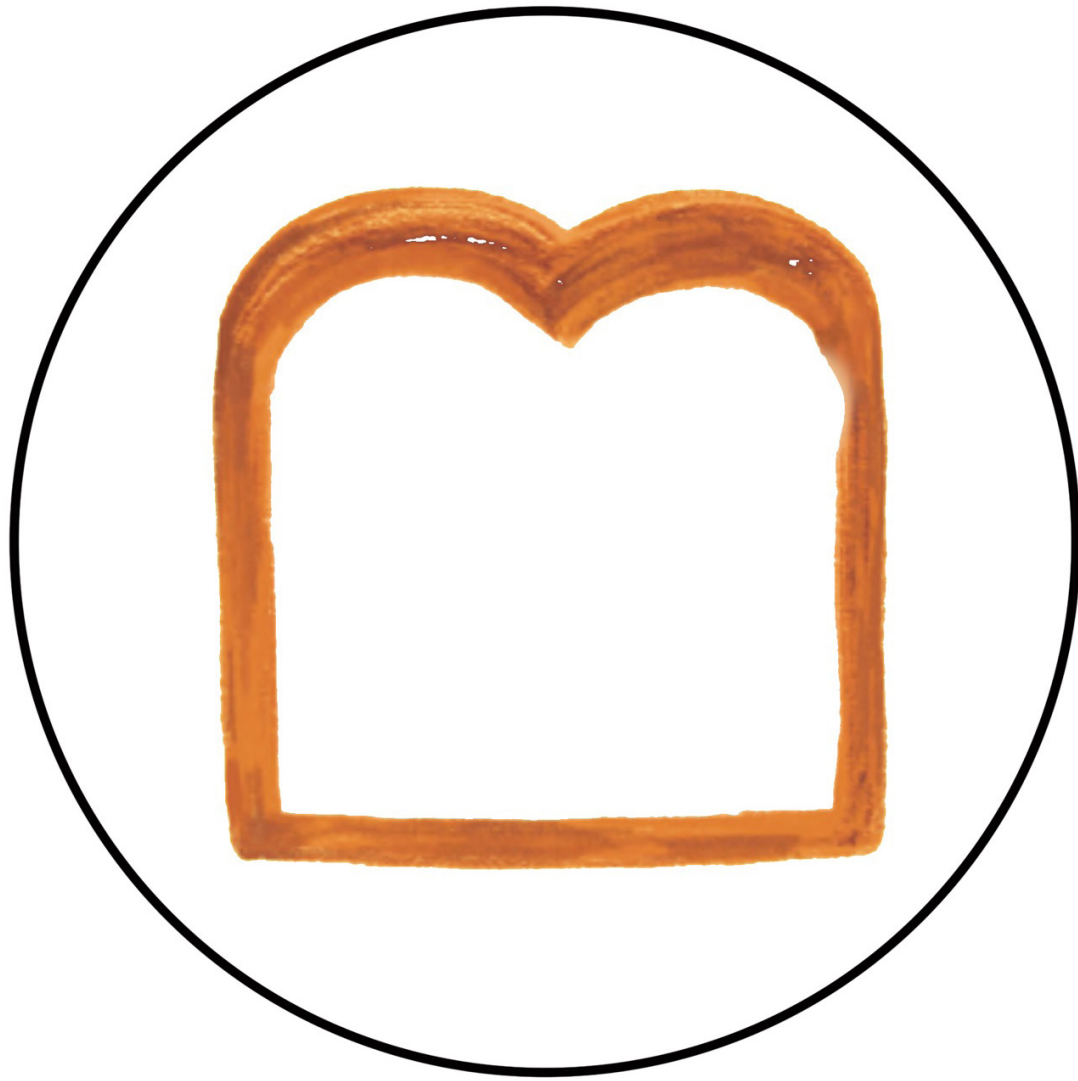


(예시)



이름 : 나는 든든한 식빵!

소개글 : 고소한 베이컨과
영양소 풍부한 계란프라이,
싱싱한 상추를 함께 올려
든든한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름 :
